

청년이 ‘놀고·먹고·쉬는’ 공간…화순 청춘오름 새단장

청년자립 돕는 커뮤니티 허브
매주 프로그램 운영·참여자 모집
홍보·역량 강화 서포터즈 출범
영화감상 등 주간 참여자 모집중
“삶의 질 향상 보탬 노력 할 것”

전라남도 화순군이 청년의 삶을 지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카페 ‘청춘오름’이 단순 스터디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놀고, 먹고, 쉬며 교류할 수 있는 자율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면 개편됐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카페 ‘청춘오름’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스터디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감성 소통 중심의 청년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청년하우스 1층에 마련된 이 공간은 독서·스터디·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리뉴얼됐으며, 매주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주간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독서

토론 모임, 화요일 일상 속 탈출 이색 대화, 수요일 영화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주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QR 접속 및 고용 24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춘오름(061-870-7785)에 문의하면 된다.

실내에는 커피머신, 스낵바 등 음료 및 다과 무료 이용 공간과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도 비치돼 청년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청년 재테크, 보이스 트레이닝, 집단 심리상담, OA 활용법 등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카페 ‘청춘오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청년카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카페 서포터즈는 15세~39세의 청년정책과 홍보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총 13명이 모집됐다. 이들은 청년가



지난 12일 화순군이 청년카페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

페 ‘청춘오름’ 홍보는 물론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청년 정책 모니터링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청년네트워킹 활성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카페 청춘오름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카페 이용뿐 아니라, 초기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기반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곡성군, 6월까지 6가구 추가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6월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사로, 손잡이,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11가구를 지원한 곡성군은 올해 1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13가구는 이미 지원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가구를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로·경사로 설치 △보조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이다.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장성군, 6월2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장성군이 지난해 종합소득 발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를 받는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홈택스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앱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민은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장성군, 28일까지 실시
부정 수취·불법 환전 등

전라남도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분석해 가맹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형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같은 가맹점에서 고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건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오리탕, 열무김치 등을 직접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 52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봉산면, 이웃 반찬 나눔 활동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52가구를 대상으로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봉산면 이음반찬’은 봉산면의 대표적인 특화 복지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담양애꽃(대표 박영아)에서 400여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8개 사회단체가 차례로 참여해 밑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전달하면서 이웃의 안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반찬 조리는 봉산면 적십자부녀회가 맡아 오리탕, 열무김치, 멸치볶음 등 3종

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활동에는 성산농원(대표 양영권)에서도 30만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기부해 따뜻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

진철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음식 전달을 넘어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봉산면 이음반찬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 지역의 온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순회 간담회

소통·협력 강화 목표

전라남도 영광군·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지역복지 문제 해결 및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영광군 11개 읍면 순회 간담회를 추진했다.

2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협의체 및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광공간 위기가정

배분사업 및 리플릿 홍보 △읍·면 특화사업 안내 및 점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세칙 개정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복지평가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소외되었던 낙월면까지 방문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업현안 개선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